E-book으로 ‘읽는’ 예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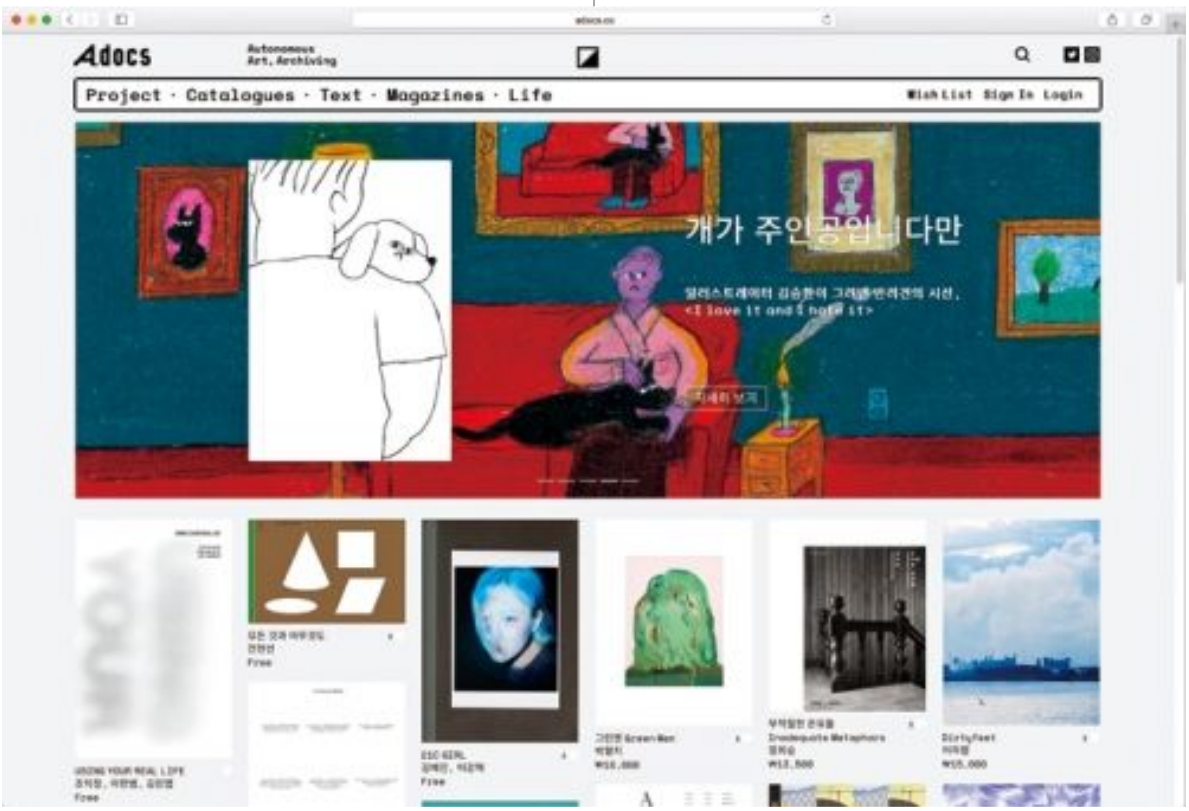
CULTURE

2019 / 01 / 28

이현

E-book으로 ‘읽는’ 예술

온라인 플랫폼 ‘에이독스(Adocs)’가 오픈했다. 전시 카탈로그, 프로젝트 도록, 포토북 등 예술 분야 독립출판물을 디지털화해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한다. 소규모 출판물을 아카이브하고, 예술 콘텐츠의 유료화를 정착하면서 자립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한다. / 이현 기자



Adocs 웹사이트

독립출판 유통 플랫폼 ‘Adocs(https://adocs.co)’가 12월 15일 정식 오픈했다. 전시 카탈로그와 프로젝트북, 사진가의 포토북, 일러스트레이터의 아기자기한 그림책까지, 개인 출판물을 디지털화해 웹상에 축적하고 E-book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다. 여타 전자책 서점과 다르게 예술 분야를 전문으로 수집하고, 개인이 출간하는 독립출판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

점이 특징이다. Adocs의 A는 독립적인(Autonomous), 예술(-Art), 아카이빙(Archiving) 등을 의미한다.

Adocs를 구축한 우르슬라프레스(Ursulapress)는 작가 정희민과 이유성, 편집자 정희정으로 이루어진 예술 전문 출판사다. 동료작가와 협업해 출판물을 제작하고, 미발표 드로잉, 노트, 기록을 인쇄물 형태로 발표하는 프로젝트 <UP03>을 기획, 운영하기도 한다. 지난 10월 <언리미티드 에디션>에 강재원, 신혜주, 이은새의 아트북을 공개했고, 특별 에디션, 굿즈, 소장품 등을 판매하는 <취미관>(2018. 12. 19~4. 21 취미가)에 참여 중이다.

Adocs는 우르슬라프레스가 '종이는 사라질 수 있어도 콘텐츠는 살아남아야 한다'라는 모토로 런칭한 출판물 유통 브랜드다. 전시나 프로젝트 등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되는 아트북이 영세한 제작 및 유통 환경에서 한시적으로 소비되고 사라지는 현실에 대안을 제시한다. '예술 출판물을 한곳에 모아 놓고 볼 수 없을까?', '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모바일로 즐길 수 없을까?', '독립출판물은 왜 E-book으로 유통할 수 없을까?' 등의 문제의식을 갖고, 플랫폼 구축을 위해 10~11월 텀블벅 펀딩을 진행했다. 우르슬라프레스의 가장 주된 목적은 '아카이빙'이다.



Adocs가 제공하는 전자책 열람 서비스. 화면은 우한나 작가의 개인전 도록 《City Units》(2017)

예술 관련 자료가 가능한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수집하고 언제, 어디서든,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전략. 현재 총 90여 종의 아트북이 등록되어 있다. PDF 형태의 콘텐츠는 작가의 선택에 따라 유료 혹은 무료로 유통되는데, 사전에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계약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20% 안팎으로 제한해 분기별로 열람 수익을 정산한다.

예술 콘텐츠의 유료화를 정착하면서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작가가 자신의 창작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한다.

운영자 정희민은 “많은 작가와 기획자가 출판물 유통, 보존, 홍보에 Adocs를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. 디지털 저작물을 유료화하고 열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덜 어색한 일이 되었으면 한다”고 밝혔다. 신년에는 서비스를 보완하고 홍보에 전력을 다하며, 플랫폼을 활용한 웹 콘텐츠 제작도 계획 중이다. 기존 출판물의 아카이빙뿐 아니라 유료 콘텐츠를 판매, 홍보하는 채널로 도약하고자 한다. 우르슬라프레스는 현재 사진 출판사 사월의눈과 함께 ‘명예’를 주제로 한 웹 출판물과 박아름 작가의 드로잉북 발간을 구상하고 있다.